

설계경기 | Competition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관

The National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당선작 / 윤세한 정해원 · 남기홍 정해원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최명철 정해원 · 김태만
(주.단우 건축사사무소)
+ (에이치 어소시에이츠)

대지위치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가관 부지 일원
주요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140,200㎡
건축면적 44,159.87㎡
연면적 131,300㎡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발주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계담당 총괄_주상선, 강현재, 조항만, 이동준
해안건축_윤정택, 장영동, 강 준, 이애란,
김용훈, 구항천, 한혜림, 서정희, 탁경민
단우건축_심우근, 최홍연, 조영건, 김동우,
손아영
H Associates_김 진, 배상준,
Linda C. Daniels, Elan Blumberg,
Dylan Sauer, 김종국, 천장환

The 3rd Nature® :
Metaphorical Archipelago
제3의 자연 : 다도해의 은유

여느 현상설계들이 그러하듯 여수세계 박람회 국가관 현상설계의 공모자침도 희망과 비전, 전제와 지향,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요구로 가득하였으며, 이 수많은 조건들은 크고 작은 불음으로 설계자가 계획을 통하여 답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먼저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답변을 마련할 주요 질문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1.건물의 지향과 비전, 2.엑스포 기간 중 건물의 쓰임새와 역할, 그리고 3.엑스포 이후에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위한 해체와 증축의 용이 등 크게 세 가지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화두,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와 맞물려, 박람회에서 가장 큰 주 건물인 국가관은 어떤 선언적인 그러나 실제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린Green, 친환경Sustainable, Marine Technology, Ubiquitous, IT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국가관 현상설계에서 설계팀은 제3의 자연이라는 단어를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로 결정하였다. 자연 그 자체로서의 자연인 제1의 자연과 그와 상반되는 의미의 인간생존활동의 산물인 인공환경 제2자연을 넘어서,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인공시스템을 의미하는 제3의 자연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적역량을 이용하여 반자연적 요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에 내제된 원리를 응용, 재해석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시스템인 제3의 자연을 국가관 설계에서 구현하였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제된 기술, 건물의 사용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작용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 산정하고 국가관에 크게 3가지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바다의 표면을 상징하면서 모든 친환경



competition

적인 기술과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지붕면으로서의 Smart Living Roof System, 염습지와 갯고랑, 갯구멍 등 부지주변의 숨쉬는 연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능적인 전시관의 본체를 구성하는 Foreshore Ground System,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목적 수직기능타워로서의 역할과 다도해위에 떠있는 섬을 은유한 Multi-Functioning Tower System이 그것이다. ■

